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광복절 기념주일 및 나라주일: 오늘 예배 후 나라별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세요.
- 겨자씨 모임: 8월 29일(토) 15시 쾰른한빛교회
- 1부 예배 재개: 8월 30일 주일부터
- 제직회 일시 변경: 8월 30일 주일 2부 예배 후
- 새가족 환영: 9월 6일 주일 2부 예배
- 190회 디아코니축제: 9월 13일 주일, „Alles, was Odem hat, lobe den HERRN!“
목회자 준비모임: 9월 3일(목)
- 한국방문: 박성희/유라
- 생일축하: 모리나, 박승희, 송인선, 김좌겸, 박희영

◆말씀일기 일정

일/사28:1-13	월/사28:14-29	화/사29:1-14	수/사29:15-24
목/사30:1-17	금/사30:18-33	토/사31:1-9	일/사32:1-20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83독 (구봉환 1독)

◆ 예배위원 안내 ◆

	8월 16일	8월 23일	8월 30일	9월 6일
예배기도	오지훈	한연재	권미정	나지홍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이선영 단주현			
애찬위원	밥상 둘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Pf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2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99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20장	다 함 께
기도/Gebet		오지훈 집사
찬양/Chor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이사야 28:1-16	인 도 자
설교/Predigt	두 면류관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25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이사야 26:1-27:1 '심지가 견고한 자' ◀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위에 앉으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이사야 26장의 전부인데,
조금 어수선한듯한 것을 내 나름으로 정리해 본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10).
악을 행해서 악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악인이다.

악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있다.
잉태하고 산고를 겪었어도 바람을 낳은 것 같은 인생이다(18).

그래도 이 같이 생명력 없는 자기 모습을 직시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정직함이 있으니, 아직 희망이 있다.

오만과 허영을 버리고(5) 정직할 수 있다면,
이미 의인의 길 위에 있다.
정직하신 주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7).

또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
즉 그 영혼의 중심(9)이 늘 한결같은 자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해 주신다(3).

나, 늘 한결 같을 수 있을까? 자주 넘어지는데...
그래도, '성공하면 조금 배우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배운다'는 말도 있으니,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해야 한다.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13).

▶ 지난 주 봉헌 내역(8월 9일-8월 15일) ◀

십일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한상철, 손교훈	구봉환, 손민주, 무명1	
총액 767,00유로		